

'K-디즈니 순천' AI 입힌 콘텐츠 정원 '인기 만발'



국가정원서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실현
MZ세대에 친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선보여

'우드베어'와 4D 입체 여행 등 첨단 기술 도입
'보는 정원'에서 벗어나 '즐기는 정원'으로

국가정원 어싱길서 명상·야간 탐조 등 즐기
낮과 밤에 즐기는 '하천 수상 퍼레이드'도 추천

'K-디즈니 순천'의 시작을 알릴 순천만국가정원이 이달 1일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지난해 1000만 관람객을 불러모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는 국가정원이 '우주'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등 흥미로운 요소들을 접목해 새로 단장했다.

개장 2주 만에 국가정원에는 50만명의 관람객이 몰려 벌써 인기몰이 중이다.

순천시는 '생태도시 순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관람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국가정원을 꾸렸다.

올해 순천만국가정원이 내건 주제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이다.

순천시는 올해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의 우주 발사체 단 조립장 부지 대상지로 울촌1산단이 선정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우주를 향한 상상력이 결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핵심 공간은 '꿈의 다리'를 개조한 '스페이스 브릿지'이다.

이곳은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가 있던 공간이다. 10년이 지나면서 누수, 탈각 등이 발생하면서 작품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순천시는 어린이의 꿈이 담긴 타일 작품 14만여 개에 대한 디지털 보존 작업에 착수했다.

덕분에 새롭게 선보인 '스페이스 브릿지'에서도 어린이 작품이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이스 브릿지의 외관은 마치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내부 175m 구간에는 우주, 불, 원시 등의 주제를 담아 연출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남문 앞 남는 공간과 배수로를 정비해 만든 '스페이스 허브'도 관광 명소가 떠올랐다. 전망대가 있는 5000평(1만6529㎡)에 달하는 공간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다. 마치 활주로를 떠올리게 하는 175m 길이 공간은 오전그린광장과 같은 휴식 공간으로 꼽히고 있다. 개막식 당일 1만여 명 시민이 참여한 '애니벤져스' 행렬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키즈가든과 노을정원 인근에는 EBS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다콩'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관람객들은 두다다콩 캐릭터와 꼬마 우주인이 함께하는 '도장 찍기 여행'과 '작은 정원사의 모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존 기념품 판매 공간은 '두다하우스'로 거듭났다. 자연주의 환경 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생명의 시원'이 외관을 장식했으며, 내부는 인공지능(AI) '두다'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두다다콩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계'들의 캐릭터도 국가정원에서 만날 수 있다. 누적 조회 수 35억회에 달하는 이 작품은 이달 애니메이션 영화로 개봉됐다.

MZ 세대에 친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새 단장에서 신경 쓴 부분은 '보는 정원'에 그치지 않고 '즐기는 정원'으로 꾸미는 것이었다.

정원박람회 핵심 공간이었던 시크릿 어드벤처는 4D 입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크릿 어드벤처'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에서는 우주인 '우드베어'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4D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객 참여(인터랙티브), 투영 전시(프로젝션 맵핑)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오감 체험을 제공한다.

체험형 숙박시설인 '가든스테이 월랑게'는 일과 휴식, 관광을 함께 즐기는 '정원 워케이션'으로 탈바꿈했다. 인근에 있는 한옥 체험 숙박시설인 '순천만 예코촌'과 연계해 더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삼나무 오두막집에서 업무를 보고 순천만 예코촌에서는 단체 숙박과 교류회, 기업 연수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지난해 식당으로 쓴 가든스테이 건물은 공유 사무실 기능을 하는 '워케이션 센터'로 거듭났다. 화상 회의장과 다과 공간, 사무기기 등을 갖췄다.

'정원 워케이션' 이용자라면 업무를 마친 뒤 국가정원 어싱길을 걷는 정원 산책과 명상, 요가, 정원 야간 탐조 등을 즐길 수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 순천만 계절별 절세 탐조, 갯벌 생태여행, 가든 콘서트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사전답사를 진행한 정원 워케이션은 개장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6월 초까지 주말 예약이 마감 될 정도로 이 공간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동천을 따라 흐르는 '하천 수상 퍼레이드'도 국가정원이 자신 있게 내놓는 즐길 거리이다.

낮과 밤 1회씩 진행되는 수상 행렬에서는 순천만과 국가정원의 다양한 동·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꾸며졌다. 관람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돼 또 다른 이색 체험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국가정원 야간 여행 '나이트 가든 투어'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형의 순천시 정원도시센터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은 우수한 아날로그 요소에 문화콘텐츠를 더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제 순천은 정원과 문화의 힘으로 정원도시를 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K-디즈니 순천'의 미래를 보여준 순천시는 영커(선도)기업 유치하는 동시에 오는 10월 문화콘텐츠 산업전을 열어 관련 산업을 도시 전역에 펼칠 방침이다.

지난 1일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에 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scbay.su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내건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남문에 5000평(1만6529㎡)에 달하는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어 생태와 우주를 접목한 화해 공간을 만들었다. (순천시 제공)



"애니메이션 입힌 '상상력 키우는 정원' 변신 문화 콘텐츠 키워 청년 일자리 창출 만들 것"

노관규 순천시장

이달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기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선보인 노관규(사진) 순천시장은 지난 15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K-디즈니 순천' 실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 시장은 "순천에서 꿈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미래를 그릴 수 있게 국가정원을 꾸렸다"며 "어디에서든 볼 수 없었던 여러 요소를 채워 관람객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원 곳곳에 심은 애니메이션 요소들은 'K-디즈니'와 한 줄기를 이룬다.

EBS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다콩' 등 캐릭터를 빌려 '상상력을 키우는 정원'을 만들었다.

시크릿가든을 새롭게 단장하는 과정에서는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계'를 제작사 ㈜로커스와 협업을 해 '시크릿 어드벤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국내 대표 콘텐츠 제작사인 로커스는 순천시와 협약을 맺고 본사를 순천으로 옮길 포부를 밝혔다.

202종 150만그루의 꽃으로 정원을 꾸며 '생

태 도심'의 명성도 유지했다.

노 시장은 'K-디즈니 순천'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

그는 "단순한 관광산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애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키워내겠다"며 "수도권 청년들도 '고급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순천에 와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년 만에 다시 치른 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끈 노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 시장의 완벽한 삼합(三合)의 결과물"로 성과를 평가했다.

4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밭으로 만들고, 흑두루미를 불러오기 위해 전봇대를 뽑는 결단 뒤에는 순천 시민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순천을 찾아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애니메이션 집적단지 조성으로 인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할 수 있도록 순천이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